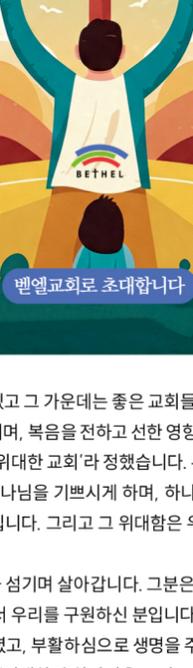


위대한 교회

에베소서 1:23



벤틀교회로 초대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는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위대한 교회'라 정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위대함을 받았으므로 그 위대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시련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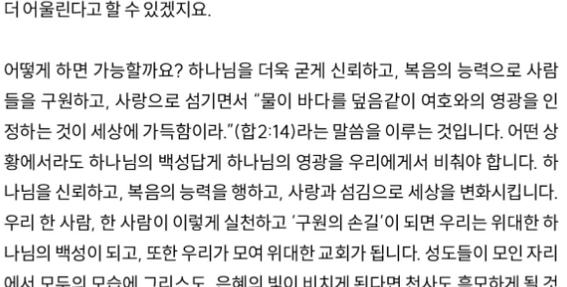


시련을 넘어 위대함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쉬운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격한 시련을 뚫고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박해와 수난의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박해를 당했지만,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위대한 사명을 품고, 시련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시련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링컨은 여러 차례 선거에서 패배하며 절망을 경험했지만, 결국 미국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력과 청력을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많은 일들을 했고 세계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위대함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비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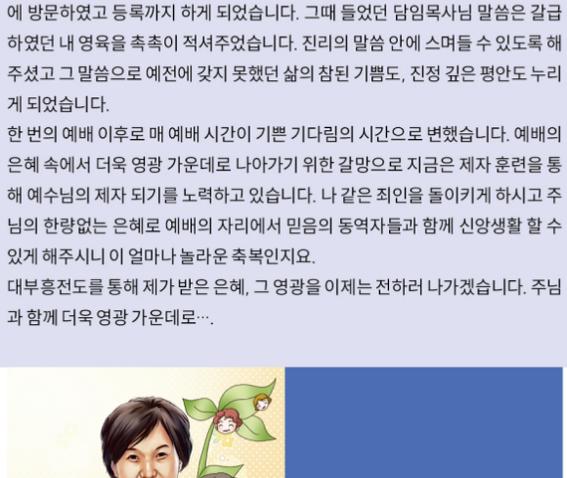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의 길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를 견뎌내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시달리며 사는 모습보다는 극복하며 사는 모습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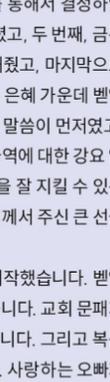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합2:14)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비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실천하고 '구원의 손길'이 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우리가 모인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의 모습에 그리스도,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된다면 천사도 흠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에 힘입어 나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흔탁하고 터진 흔들리는 세상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 살며,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위대한 성도, 우리는 위대한 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 음이니라"(사60:1) 아멘!



벤틀교회는 광야에서 배회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벤틀'이라 칭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왜 '벤틀교회'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담임목사 박광익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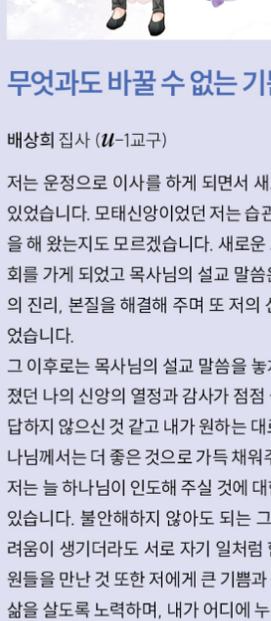
박광익목사



대부흥전도를 통해 제가 받은 은혜, 그 영광을 이제는 전하려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 영광 가운데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김연화 권사 (M-2교구)
저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각 1급 장애인 오빠가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날마다 지팡이를 짚고 찾아가 효도하는 모습에 늘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각장애인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가족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굳게 심어주셨고 그런 중에 파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벤틀교회에 정착하면서 남편과 함께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인 집사님이 벤틀교회를 꼭 가보고라 권하셨고, 두 번째, 금릉역 부근에 사는 오빠가 벤틀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전해줬고, 마지막으로 집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에 참석하였더니 은혜 가운데 벤틀교회의 특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깊은 영성의 말씀이 먼저였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강요 없이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로 대부흥전도에 참여하고 구역모임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에 너무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후반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 한편에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벤틀교회에 온 것이 가족의 일로써 마음 기도를 기도 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 문패가 없는 귀구들을 오고 가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벤틀교회 4주간 출석하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집 근처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더욱 영광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께 올립니다.

담임목사님의 깊은 영성의 말씀이 먼저였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럼 없이 주님과 살아가는 기쁨

송주현 자매 (f-청년3부)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여러 가지 일들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저는 집사님의 권유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여 큰 기대 없이 가게 되었지만, 뜻밖에도 그날 들었던 담임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삶의 고민과 상황을 이해하고 계산 듯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받은 것 같아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님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교회를 찾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신앙을 더욱 깊이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와 사랑이 고민과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서로 자기 일처럼 함께 기도해 주며 믿음으로 격려하는 구역원들을 만난 것 또한 저에게 큰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배상희 집사 (M-1교구)
저는 운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던 평범했던 그날, 벤틀교회를 가게 되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내 영혼의 목마름과 늘 고민하였던 신앙의 진리, 본질을 해결해 주며 또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놓치기 싫어 메모해 가며 예배를 드렸고 사라졌던 나의 신앙의 열정과 감사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서로 자기 일처럼 함께 기도해 주며 믿음으로 격려하는 구역원들을 만난 것 또한 저에게 큰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내가 어디에 누구와 있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고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기쁨을 많은 이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미취학부 공연 안내

2부 활동 푸쉬팝 케이크 만들기

일산(i) 영유아부



탈인형극 빨간 모자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가는 길에 아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날짜: 4월 13일 주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5층 유아부실 ▶대상: 3~5세

일산(j) 유치부

탈인형극 바이블 트레인
칙칙폭폭! 로보가 풀리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바이블 트레인 여행에 유치부 친구들을 초대해요!
▶날짜: 4월 20일 주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5층 유치부실 ▶대상: 6~7세

2부 활동 난수중매 왕관 만들기

운정(u) 영유아부

탈인형극 아기 상어구출대작전
뚜루뚜루~ 아기 상어가 산호놀이터를 떠났어요. 다 함께 아기 상어를 찾으러 출발!
▶날짜: 4월 13일 주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2층 영유아부실 ▶대상: 3~5세

2부 활동 계란 토끼 만들기

운정(u) 유치부

복합인형극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해요! 누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날짜: 4월 20일 주일 ▶시간: 10시, 12시, 2시
▶장소: 2층 유치부실 ▶대상: 6~7세